

6월10일 월요일

시편 49편 물질을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

본시는 세상에서 권력과 부로 교만하여서, 약자를 압제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악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1-2).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7절)

50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의 심판 기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1,4).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불과 광풍으로 임하셔서(3), 성도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십니다(5).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종교생활, 즉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8).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4-15절)
1) ()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2) 지존하신 이에게 한 ()을 갚았는지
3) 환난 날에 ()을 부르고 찾았는지입니다.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본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요? (16-17절)

52편 애독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가 애독사람 도엑의 밀고로 살해 당하는 사건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6월11일 화요일

53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결말

본 시편은 14편과 비슷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시입니다. 본시에 나타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
2)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
3) 지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음
4)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 함

54편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십 광야에 숨었을 때, 십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쓴 시입니다(삼상 23) 이 때 다윗은 인간적 비애를 느꼈을 것이고,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의지할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밖에는 자기를 알고 구원할 이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합니다(1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 보게 하셨나이다."

55편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플때

본시는 추측컨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총애를 받던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건을 경험한 후 쓴 시입니다(삼하 15~17장). 배신으로 인한 다윗의 상심(1-8절), 그 배신자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음(12-14절)이 더욱 다윗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을 여호와께 (). 그가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본시에서 다윗은 자기를 삼키려고 하며, 압제하는 자들로 인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6월12일 수요일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본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대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의 반복되는 고백이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을 써 보세요.

58편 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

본시에 나타난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경고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함이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하나요? (4-5절)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는 때에

본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집으로 보냈을 때 쓴 시입니다(사무엘상 19장). 이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다음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는 무엇인가요?
1) 하나님은 나의 ()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2)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60편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아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

본시는 사무엘하 8:13과 역대상 18:12의 사건을 가리키며, 다윗이 왕이 되어 사방의 대적들을 정복하던 시기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정복전쟁에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6월13일 목요일

61편 마음 아파 탄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본시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눌러서 기도조차 힘든 우리들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다윗은 마음이 놀리고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2).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라"고 결심합니다(2). 기도조차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을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시인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62편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봄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때에도(3절), 다윗은 2절과 6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직 그만이 나의 ()이시오, 나의 ()이시요, 나의 ()이시기 때문입니다."

63편 유다광야에 있을 때에

본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광야는 종종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가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요?

64편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호소하는 시

본시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원수를 대적한 다윗의 경험으로 지은 시입니다.

1) 악한 자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를 놓으며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2) 악한 자들이 죄악을 꾸미면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악을 행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6월14일 금요일

65편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

본시는 분위기로 보아 전쟁 중에 썼다기보다는,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동안 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9-13절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추수를 기념하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 대사 그 이랑을 () 하시며, 또 단비로 ()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사철과 밤낮의 주기뿐 아니라, 모든 자연의 기후는 자연의 이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 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땅에서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6편 출애굽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함

본시에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어 두르게도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끌어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10-12절)

67편 선교의 노래

본시에서 시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만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사명입니다. 이 선교적 마음과 사명이 3절과 5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를 찬송하게 하소서."

68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

본시는 다윗이 오벰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일 수 있습니다. 시 전체가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여, 위엄을 ()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월15일 토요일

69편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며 방황할 때 쓴 시

본시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하는 기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8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며(13-18절), 기도를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가닭 없는 비방과 오해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 할지어다. 여호와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70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

본시는 시편 40편 13-17절과 비슷합니다. 4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71편 노년의 시편

본시에서 시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셨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돌보아 주시길 간구하고 있으나요?

(이 시대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은퇴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노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해야겠습니다)

72편 솔로몬의 시

본시는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있고, 마지막 절에는(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윗의 임종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축복함과 동시에,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왕이신 예수그리스도의 통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17절, 19절)